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19(금) ~ 2024.7.25(목)

제공일시 2024 08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7.19(금) ~ 2024.7.25(목)

제공일시 2024 08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바이든, 미 전역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43억달러 보조금 지급

- 바이든-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도합 43억달러(약 5조95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
 - 보조금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발전, 수송, 건물, 산업, 폐기물과 농업 등 6개 부문에 걸친 25개 프로젝트에 지급될
 -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산림 복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히트펌프 대체 프로젝트 등이 선정됨
- (ESG경제 2024.7.23) 김현경 기자

2. EU, 내달부터 中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 반덤핑 관세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관련 문건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임시 조치 성격으로 내달 중순께부터 12.8~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집행위는 내년 2월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때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연합뉴스 2024.7.20) 정빛나 기자

3. EU-세르비아 리튬 협약 체결... 환경 우려 속 '그린 미래' 향한 도전

- EU와 세르비아가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생산망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EU 측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23일(현지시간) 두브라브카 제도비치-한다노비치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장관과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주요 원자재 정상회의 후 양해각서에 서명함
 - 자다르 광산은 유럽 최대의 리튬 매장지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최대 5만8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포춘코리아 2024.7.22) 문상덕 기자

1. 해외 투자개발 ‘몸집’ 키운다... “K신도시 등 연간 500억弗 수출”

- 정부가 앞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함
-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 금융을 연계해 기존의 단순 도급 사업을 넘어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이를 통해 2027년 연간 500억달러(약 69조원)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를 달성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국토부는 우선 고부가가치 시장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또 정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수주 성과로 이어간다는 구상임.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맞춰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확대함

(한국경제 2024.7.23) 유오상 기자

2. 韓·日 300만 중소기업 첫 ‘서틀 교류’ 나선다

-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 대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서틀 교류’에 나서기로 함. 대기업이 아닌 한·일 중소기업계가 정기 교류에 나서는 것은 처음임
-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
-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기 단체 간 인적·기술 교류,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간 교류, 중소기업 인력난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 교환에 나선다는 계획임
- 양측은 이와 관련해 정책 포럼을 해마다 1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하기로 함

(조선일보 2024.7.19) 류정 기자

3. 환경부, 가전제품 제조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2.7배 확대... LG·삼성전자와 협약 체결

- 환경부가 LG전자·삼성전자 등과 함께 전자제품 제조 시 재생원료를 확대 사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
- 협약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현재 연간 2600톤 수준에서 7000톤 수준으로 늘어남
- 협약에 따라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업체 씨엔텍코리아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뉴스핌 2024.7.18) 양가희 기자

4. 기보,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 2000억 규모 보증 공급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올해 반도체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힘
- 기보는 특히 시스템반도체 기술가치평가가 팹리스 및 칩리스(반도체 IP) 기업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자금지원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음

(뉴시스 2024.7.18) 권혁진 기자

1. 테슬라, 美 인터섹트 파워와 ‘15.3GWh 메가팩’ 공급 계약 체결… 사상 최대 규모

- 테슬라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인터섹트 파워와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팩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해외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인터섹트 파워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테슬라로부터 15.3기가와트시(GWh)의 메가팩을 공급받게 됨
- 이는 인터섹트 파워의 여러 태양광 및 저장 프로젝트에 탑재되며, 주문량 중 절반 이상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위치한 4개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프로젝트에 사용됨

(M투데이 2024.7.20) 임현섭 기자

2. 엔비디아 미 규제 넘어 중국용 AI칩 생산계획,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혜 예상

-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한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B20’을 개발하고 있음
- B20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지침을 준수해 만들어진다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HBM 품질인증을 기다리는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에 AI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비즈니스포스트 2024.7.23) 김호현 기자

3. 위기의 노스볼트… BMW 주문 취소에 폭스바겐도 재검토

-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흔들리고 있음
- BMW가 노스볼트와 체결한 20억달러(2조7700억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폭스바겐도 협력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옴
- 독일 자동차 전문 주간지 아우토모빌보헤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스볼트의 배터리 납품 역량 점검에 돌입함
- 노스볼트가 스웨덴 북부 셸레프테오 공장에서 배터리를 양산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짐

(전자신문 2024.7.21) 이호길 기자

4. 도요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 도요타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스타트업 에니코우트 테크놀로지스에 55억엔(약 486억원)규모의 자금 지원을 주도하고 있음
- 차량 판매량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도요타가 지난해 프리우스 모델에 태양광 전지판을 지붕에 부착, 주차하는 동안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을 선보인 것은 어느 정도 단점을 개선했기 때문임
- 도요타가 에니코우트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에니코우트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전지 관련 실용적인 생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이는 도요타도 차량 지붕 등에 태양전지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임

(임팩트온 2024.7.22) 홍명표 기자

1. 현대차, 日 전동화 전환 선도… 전기버스 ‘일렉시티 타운’ 공급

- 배타적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한 현대자동차가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일본 상용차 시장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낸
- 현대차는 지난 18일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와사키그룹과 무공해 전기버스 일렉시티 타운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의향서(LOI)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부터 일렉시티 타운 계약에 본격 돌입함
- 현대차는 올해 4분기 출시되는 일렉시티 타운 1호차를 전달하고, 내년 1분기까지 총 5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구매의향서를 이와사키그룹과 체결함

(더팩트 2024.7.23) 최의종 기자

2. 삼성중, 中 유일 생산법인서 탱크 내재화 추진

- 삼성중공업이 중국 생산법인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 탱크 내재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 그동안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던 영성법인을 선박 블록(선체 기본 구조물) 제작뿐 아니라 친환경 선박 탱크를 제작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박 2척의 탱크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일부는 외부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됨

(딜사이트 2024.7.23) 최유라 기자

3. 포스코퓨처엠, 공급망 ESG 강화… ‘입찰 허들제’ 도입 추진

-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사의 입찰을 받지 않는 ‘입찰 허들제’ 도입을 추진함
- 자사뿐 아니라 공급사까지 까다로운 ESG 기준을 적용해 공급망(밸류체인) 전체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임
-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입찰 허들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시행을 준비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함
-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올해부터 공급사 입찰 참여 조건에 강화된 ESG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범 운영하기로 함

(이데일리 2024.7.23) 김성진 기자

4. 美 전기차 불확실성에… LG엔솔·GM 합작 제3공장 건설 중단

-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스’가 미국 미시간주(州)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대선 등 업황에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양사는 투자를 일시정지함
- 2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얼티엄셀스 제3공장 건립이 중단됐다고 전해짐

(서울와이어 2024.7.22) 천성윤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7.19(금) ~ 2024.7.25(목)

제공일시 2024 08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과 유럽, 조 단위 운송·교통 투자 발표... 중국·러시아 영향력 봉쇄

- **미국과 유럽 정부가 유럽 교통·운송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음. 친환경 인프라 투자인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인팩트온 2024.7.19) 유인영 기자
- 16일(현지시각)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중·동부 유럽 기금인 삼해 이니셔티브 투자기금 (Three Seas Initiative Investment Fund, 3SIIF)은 DFC가 제공하는 최대 3억달러(약 4100억 원) 규모의 중·동부 유럽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투자 중 첫 번째 지출을 발표했음**
- 삼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 3SI)는 2016년 발트해-아드리아해-흑해 국가 간의 연결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구성된 중·동부 유럽 12개국의 협의체로, 2019년에는 중·동부 유럽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SIIF를 설립했음. 역내 국가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초기 투자 금액은 9억2800만유로(약 1조4000억원)이며, 2022년 미국은 3억달러(약 4156억원)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음
- **DFC와 3SIIF는 이번 투자를 통해 중·동부 유럽 삼해 지역 전역에 지리적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음.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와 운송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투자 지원 프로젝트와 투자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음
- DFC의 CEO 스콧 네이션은 “오늘 발표는 삼해 지역의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지정학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유럽 전문 매체 유렉티브는 미국의 중·동부 유럽 지원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삼해 이니셔티브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삼해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음
- **유렉티브는 중국 정부의 유럽 지역에 대한 관심도 중·동부 유럽에 대한 미국의 투자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중·동부 유럽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 왔음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헝가리에 160억달러(약 22조1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등이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음. 그리스 최대 항만이자 유럽의 6번째 컨테이너 항인 아테네의 피레우스항에 대한 유럽 운송 인프라 투자도 눈길을 끄